

## 저소득지역 아동방임 실태

이 은 주(동국대학교)

### 1. 서 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서의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동아일보, 2004; 세계일보, 2004). 이러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유기와 아동방임은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동방임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방임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이웃사랑회와 아동학대문제연구소(2000)가 전국규모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가 23.6%, 정서적 학대 36.1%, 성학대 14.6%, 아동방임이 58.1%로 신체적 학대보다 약 2.5배, 정서적 학대보다 1.6배, 성학대보다 약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한 이재연(200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방임은 20.2%로 나타났으며, 안동현(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방임 발생 비율이 39.6%로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조사된 아동방임 비율도 46%로써 다른 학대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Trocme et al., 2003). 또한 Coohy(2003)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방임에 의해서도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동들은 교통사고, 화재, 낙상, 수재상황에서 적절하게 지도 및 감독되지 않을 때 성인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동들은 자기보호 기술이 부족하여 아동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방임의 영향으로 발육부진이나 각종 재해, 아동 비행문제, 안전사고 등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이재연, 2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방임은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학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실무 종사자들 역시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를 보다 더 위험한 학대 유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유

형 중에서 발생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아동방임의 잠재적 위험성은 아동의 지속적인 발달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방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대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방임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방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소득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동방임을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방임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아동방임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아동방임에 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방임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차이를 알아보며,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방임의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방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방임 유형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아동방임 설문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전국의 24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하였다. 서울 6개, 경기도 6개, 충청남·북도 3개 전라남·북도 4개 경상남·북도 5개의 총 24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556부의 설문지가 배포되고 492부 회수되어 88.5%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안된 다차원방임행동척도(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4일 ~ 8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임의로 추출된 초등학교 14명과 부모 14명으로 조사원이 직접 만나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6년 9월 3일 ~ 9월 10일에 실시하였는데, 미리 전화로 조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2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에게

게 설문 실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가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시간을 이용하여 아동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아동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교사가 각각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에게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지도감독, 환경적 방임의 경험을 묻는 문항과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친구의 문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아동의 인간관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아동센터 생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중에서 초등학교생들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켜 전체 연구대상은 433명이었다. 분석과정은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집단간 차이를 ANOVA를 실시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방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표집된 아동들 수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47.4%, 고학년이 52.7%를 차지하였다.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46.4%, 여아가 53.3%로 나타났으며, 아동 형제 수는 1명인 경우가 43.6%, 가족관계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의 평가에서 아동의 학업성적은 보통과 보통 이상이 전체 70%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응수준도 보통과 보통이상이 84.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경제수준은 보통가정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가정이 24%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방임의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의료적 방임을 포함한 물리적 방임은 12.2%, 인지적 방임 58.9%, 정서적 방임 44.1%, 지도감독방임 30%, 가정환경방임 12.9%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학년, 가족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 적응수준이었다. 분석결과 성별과 가족관계 및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과 적응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아동방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으며, 가족관계의 차이에서는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의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들이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들보다 보다 빈번하게 아동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아동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가정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의 하위유형 중에서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및 가정환경 방임은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물리적 방임과 지도감독 방임은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및 가정환경 방임 유형에서 저소득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보통 가정의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방임 경험 유무에 따른 예측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가족변인과 학교환경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환경 변인 들 중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방임 경험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방임을 경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아동들은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학교성적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한 남아들이며, 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으며 교사와의 관계도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발생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위험군에 속한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앞으로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은 정기적인 아동방임 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방임을 판정하기 위한 사정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방임 사례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상호네트워크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